

법정 출두하는 트럼프 지지율은 급등

기소인부절차 위해 법원 출석 NBC 방송 "30여개 혐의 기소" 52% 지지율 공화 대선 후보 1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성관계 입막음 의혹'으로 기소된 이후 4일(현지시간) 기소인부절차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 로어맨해튼에 위치한 형사법원 청사 주변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석을 앞두고 방송사 카메라들과 언론사들의 천막 부스가 늘어섰다.

3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일 오후 2시15분께 법원에 출석해 기소인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소인부절차는 피고인에게 기소 내용을 고지하고 재판부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NBC 방송은 약 30개 정도의 혐의(charges)가 적용됐다고 보도했고 AP 통신은 최소 1개의 중범죄(felony) 혐의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 조 타코피나 변호사는 이날 CNN에 출연, "기소 내용을 받은 뒤에 그것을 해부할 것"이라면서 "법률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어떤 법도 해당하는 게 없기 때문에(기소를) 기각해달라는 요청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인부절차에 앞서 맨해튼 지검에 출석해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 촬영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또 오후 8시15분 판피치에 있는 자택 마라라고에서 연설할 예정이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한 뒤 4일 밤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 전부터 공개적으로 체포설을 제기하고 "거짓에 근거한 기소가 초래할

수 있는 죽음과 파괴가 우리나라에 재앙이 될 수 있다"면서 사실상 폭력 시위를 선동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는 대매심이 기소 결정을 내리자 "정치적 박해", "마녀사냥" 등의 표현을 쓰면서 반발했다.

검찰 기소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공화당 경쟁자들 사이에서 대선 지지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후 뉴스와 유고브가 지난달 30-31일 미국의 성인 10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화당 경선 후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52%의 지지율을 기록해 1위였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도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에 여과없는 분노를 표출했다.

하원 정보위원인 마이크 터너 의원은 CNN에 출연해 "형사 절차가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소를 강하게 규탄했고, 빌 캐시디 상원의원은 폭스뉴스에서 "이 정치 연극이 다른 중요한 문제들로부터 시선을 분산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美 토네이도 강타 최소 29명 사망 토네이도 발생 이틀 후인 2일(현지시간) 미국 인디애나주 쉐리번에서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파괴된 집에서 잔해를 뒤지며 생필품을 챙기고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테네시주, 미시시피, 앨라배마, 인디애나 등 미국 남부와 중서부 곳곳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해 최소 29명이 사망했다. /연합뉴스

핀란드 총선 친기업 중도우파 국민연합당 승리

30대 산나 마린 총리 패배 인정

2일(현지시간) 핀란드 총선에서 친기업 중도우파 성향의 국민연합당이 30대 총리가 이끄는 중도 좌파 집권당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최근 사적인 파티 영상이 유출돼 논란을 일으킨 산나 마린 총리(37)의 사회민주당은 극우성향의 핀란드인당에도 근소한 차이로 밀려 3위에 그쳤다.

AFP·AP·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개표가

99% 진행된 가운데 국민연합당은 20.8%, 핀란드인당은 20.1%, 사회민주당은 19.9%를 득표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총 200개 의석 중 48석, 46석, 43석을 차지하게 됐다.

페테리 오르포(53) 국민연합당 대표는 "위대한 승리였다"며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핀란드 정부를 꾸리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린 총리는 총선 패배를 인정했다. 2019년 세계 최연소 선출직 정상이 된 마린 총리는 코로나

19 사태 대응과 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무리 없이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집권 당시 64%에서 최근 73%까지 오른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과 경제성장률 둔화,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재정 정책 측면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사적인 자리에서 격정적으로 춤 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유출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마린 총리는 마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업무 태만이 아니라는 공식 조사 결과도 나왔다. /연합뉴스

'OPEC+' 하루 116만 배럴 추가 감산 예고

미국·사우디 관계 긴장 고조

지난해 대규모 감산에 합의한 'OPEC 플러스'(OPEC+) 소속 주요 산유국들이 2일(현지시간) 하루 116만 배럴 규모의 자발적 추가 감산을 예고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SPA 통신은 내달부터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이 하루 50만 배럴(bpd) 감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우디 에너지부는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인 감산은 국제 원유시장의 안정을 위해 예방적으로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는 지난해 10월 하루 원유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하루 20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했었다.

이날 아랍에미리트(UAE)도 5월부터 연말까지 14만4000 배럴 감산에 동참한다고 발표했다.

국영 WAM 통신은 이번 자발적 감산이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이러크도 이날 하루 21만1000 bpd 감산 계획을 발표했다. 쿠웨이트(12만8000 bpd), 오만(4만 bpd), 알제리(4만 8000 bpd), 카자흐스탄(7만 8000 bpd)도 자발적 감산에 동참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OPEC+ 회원국이 발표한 추가 감산량을 합하면 116만 bpd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올해 3~6월 50만 bpd 감산을 예고한 러시아는 감산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주요 산유국들의 잇단 감산 발표는 오는 3일 OPEC+ 장관급 감시위원회(JMMC) 회의의 앞둔 상황에서 이뤄졌다. 앞서 지난 2월 OPEC+ 감시위원회는 하루 200만 배럴 감산 방침을 유지하라고 산유국들에 권고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OPEC+의 추가 감산 조치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사우디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中, 차이잉원 美 방문 앞두고 고강도 군사훈련

"매카시 만나면 대만 봉쇄 훈련"

중국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고강도 군사훈련을 진행하며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중앙아시아 방문에 나선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5일 경유지인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 의전 서열 3위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지자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만을 관할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최근 하늘과 바다에서 고강도 군사 훈련을 했다면서 2일 훈련 모습을 공개했다.

바다에서는 미사일 후회함 상탄함, 미사일 구축함 타이위안함, 소브레메니급 구축함 타이저우함으로 편대를 구성해 실사격 및 대잠수함 훈련 등 실전 훈련을 했다. 하늘에서는 Su-30 전투기와 J-10 전투기를 동원한 야간 훈련을 했다. /연합뉴스

동부전구는 합정 편대의 합동 작전 능력을 검증했고, 야간 공중 훈련을 통해 조종사들의 전투 능력을 크게 향상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육상에서는 대만과 가까운 광둥성 동부의 한 기갑여단이 최신 장갑차를 대거 실전 배치했다고 중국 중앙TV(CCTV)가 최근 보도했다.

중국군의 각종 훈련과 장비 보급은 차이 총통의 중앙아시아 순방 기간에 진행됐다.

중국 군사전문가 푸젠샤오는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차이 총통이 매카시 의장을 만난다면 중국이 지난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당시와 유사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2~3일 펠로시 당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빌미로 대만 봉쇄 군사훈련을 했다.

동부전구 주도로 진행된 훈련에서 중국군은 대만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는 등 일주일간 도발적인 무력시위를 벌였다. /연합뉴스

中, 美 반도체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조사

"한국과 일본에 보내는 경고 신호"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규제에 나서면서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같은 이웃 나라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상하이의 반도체연구회사 IC와이즈의 왕리푸 분석가는 중국 반도체 시장이 미국과 동맹에 의해 포위된 상황에서 개선된 이번 조사는 한국과 일본에 보내는 경고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대만과 함께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고자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의 일원이다. 이들 나라의 고위 관리들은 지난 2월 첫 번째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

왕리푸는 특히 한국이 중국의 마이크론 조사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에 여전히 반도체 제조 시설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해당 조사는 미국의 행동을 따르지 말라는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당 경고가 미국의 중국 상대 수출 규제에 동조한 네덜란드에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CAC)은 지난달 31일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제품에 대한 인터넷 안보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외국 반도체 회사에 대해 사이버 안보 심사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안보 심사 이유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정보 인프라의 공급망 안전을 보장하고, 잠재된 제품의 문제가 인터넷 안보 위험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률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짜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갈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지붕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